덕 담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성장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 이유는 묘월(卯月)과 묘시(卯時)가 모두 농사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해 성장과 풍요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부지런히 일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을 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말을 합니다. 토끼는 너무나 날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잡기도 어려운데 두 마리를 한꺼번에 얻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을 실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끼해를 맞아 누구보다 먼저 변화에 대응하고 앞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성장과 풍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후 2년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중앙종무기관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밑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후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더 큰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준엄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종단적

자정과 쇄신을 위한 결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라는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 결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불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켜내야 합니다. 이 과제를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단위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국불교를 쇄신하는 중대한 사명을 짊어진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라는 슬로건 아래 종무를 집행해 왔습니다. 이제 토끼의 해를 맞아 토끼가 가진 덕을 하나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끼의 큰 귀입니다. 큰 귀는 소통의 시작인 경청(傾聽)을 의미하고 이것은 바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귀를 열어두고 세간의 모든 소리를 관(觀)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본받을 때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우리 중앙종무기관 모든 종무원 여러분의 소구소망이 신묘(神妙)하게 이루어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5년 2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